

반대 여론 귀막은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고시일정 앞당겨 오늘 확정 발표

새정치 지도부 국회 '밤샘 농성'

여야합의 원 포인트 본회의 보이콧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행정예고 기간이 2일 마감되고 당초 5일로 예정됐던 확정고시가 3일 이뤄지면서 교과서 국정화 추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고, 마감일인 이날까지 찬반 의견을 받았다.

교육부는 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의 행정예고를 이날 밤 12시로 마치고 3일 확정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확정고시와 관련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나 김경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발표 예정이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행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결과를 바로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예고한 뒤 이날까지 찬반 의견을 받고 5일 관보에 교과서 국정화 안을 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차원에서 고시 일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확정고시가 되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한 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에 착수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가뜰이나 논란이 첨예한 사안을



역사교과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일 여야 의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각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은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찬성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 오른쪽은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과 유인태, 박홍근 의원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 맨 우측은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연합뉴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여서 국정화에 반발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확정고시 강행에 반발, 이날 밤부터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에서 농성을 하는 건 '세월호 범'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섰던 작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교육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3일 오전 열기로 합의했던 원 포인트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정예고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이날 교육부를 찾아 국정화 찬반 의견을 전달했

다.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이날 오전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역사교과서 개선특위 위원장, 국회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명의로 된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새정치연합 유인태·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국민 서명서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

예비비 자료 제출 공방...예결위 나흘째 파행

野 의원들 오후 회의 불참...“최경환 부총리 말 바꾸기” 비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자료 제출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2일 또 파행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분야 정책직임을 시작했으나,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불참하면서 10여분 만에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정회를 선언했다.

오전 회의에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편성 세부 내역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자료 제출에 난색을 보이던 정부는 김재경 예결위 위원장의 거듭된 독촉에 이날 오후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세부내역이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순서만 일부 바꾼 데 불과하다며 또

다시 반발했다. 결국,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예비비 세부 내역 제출과 관련,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야당의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와 회의 '보이콧'에 새누리당은 "월권", "갑질" 등의 용어를 써가며 맞불을 놨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장인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결산 심사 이전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5년 전 교육부·기획재정부·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비비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내역을 숨기기 위한 거짓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역사교육 40년전으로 되돌리지 말라”

장휘국 교육감 국정화 철회 건의서 전달... 교육부 앞 1인 시위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지역 교육계가 '패닉' 상태다. 당장 지역 교육계·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촛불 집회와 범국민대회가 계획되고 있다.

전교조 광주시지부를 비롯,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일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 예정이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도 7일 서울로 집결,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비판하는 범국민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확정고시 뒤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움직임도 진행중이다. 전교조는 7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정

고시 이후 '역사교과서 집필을 위한 시민기구 조직', 불복종 선언 등의 대응 방향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3일 오전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장 교육감은 이에 앞서, 2일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국정화 철회 건의서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보냈다.

장 교육감은 이날 보낸 건의서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라며 "꼭 국정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12월28일(월)

패턴 :매주 목(2박3일) /토(2박3일)출발

스케줄 : 무안(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항공기 : 스타플라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월) 799,000원에 관다!

북큐슈/야마구치 3일 (목)성인/599,000원 어린이/569,000원 (토)성인/679,000원 어린이/649,000원

기타큐슈/나가사키/하우스템보스 3일 (목)729,000원 (토)76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목)679,000원 (토)749,000원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 779,000원

벳부/오이타 올레길 [3일] [4일] (목)(토) 499,000원 ~ 769,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